

'개교 100주년' 해남 계곡초등학교, 졸업식·개교행사 개최

'10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해남 계곡초등학교(교장 박은미)가 100회 졸업식과 개교 100주년 행사를 동시에 개최, 새로운 미래를 기약했다.

계곡초는 지난 27일 학교 강당에서 '100회 졸업식 및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계곡초는 지난 2021년 개교 100주년을 맞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이번 졸업식과 함께 행사를 치르게 됐다.

5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이날의 졸업식에는 학부모와 동문,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 및 기념 식수, 기념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는 물론 후배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총동문회의 마음이 어우러져 더욱 의미 있었다. 동문들은 후원금을 모아 '백년의 숨결 도약의 터'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학교발전을 기원했다.

1921년 성진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계곡초등학교는 1947년 성진국민학교, 1996년 계곡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계곡초는 1992년 계곡동국민학교, 2009년 계곡서초등학교가 통합해 계곡유일한 초등학교로 남았다.

올해 졸업생 5명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5488명



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24년 현재 6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24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계곡초등학교와 총동문회는 이번 10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학교측에서는 지난 해부터 농산어촌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계곡 '개천통 프로젝트'를 운영, 7가정 9명의 유학생을 유치했다.

또 문화와 예술, 진로 프로그램을 묶은 '꿈·끼 UP!' 등을 운영중이며 입학축하금 100만원·졸업

축하금 50만원 지원, 해남 전지역 통학 차량 운행,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야간공부방 운영, 5·6학년 학생 해외체험학습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문들 역시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안중일 전 광주초대교육감 별세



안중일(사진) 광주시 초대교육감이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안 전 교육감은 함평 월야 출신으로 광주 광주서중·일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55년 광주여자고등학교에서 교단에 첫발을 디딘 뒤 교감·장학사·전라남도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거치고 1986년 광주시 초대교육감으로 임명됐다. 임기 동안 '실력 광주'의 주춧돌을 놓았으며 1990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이후 광주시 초대교육연수

원장을 맡으며 정년했다. 이같은 공로로 199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았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과 전라도와의 인연을 계승하기 위해 1999년 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를 창립했다. 이후 이를 발전시켜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2015년 국비·지방비·자부담을 확보하여 백범 김구 선생의 정치추진금으로 조성된 학동 백화마을 옛 터에 광주백범기념관을 건립했다.

부인 김인수씨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빈소는 VIP장례식장 101호에 마련되었으며, 장지는 함평군 월야면 선영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은정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부 장관상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은정(사진) 교수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지난 5년간 호남지역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 정착되도록 전문성을 발휘해 열정적으로 지원해왔다. 최 교수는 "영유아에게 비전을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과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사

◆광주은행
◇부행장보 ▲김종민 ▲임형수 ▲고재덕 ▲변미경 ▲김우진

승진
◇1급(4명) ▲금호동지점 박진영 ▲백운동지점 임수경 ▲양산동지점 장명자 ▲평동공단금융센터 안창문

◇2급(9명) ▲개인신용대출분석실 정민호 ▲농성동지점 박경서 ▲문흥지점 정스나 ▲양림기동병원지점 김순희 ▲여서동지점 차동민 ▲울촌산단지점 이관연 ▲자곡세탁방지점 김경범 ▲전대병원지점 박진숙 ▲해남지점 김일국

◇3급(15명) ▲IT기획부 송종호 ▲각화동지점 정희선 ▲광주시청지점 김은진 ▲구월동지점 최지원 ▲논현지점 박인경 ▲데이터상품전략부 백승기

▲디지털금융센터 박미 ▲수도권금융센터 김현정 ▲여수시청지점 양호철 ▲여인관리부 양민현 ▲운암동지점 노미정 ▲인사지원부 조승현 ▲자금시장부 정지훈 ▲첨단금융센터 심유진 ▲투자금융부 박명근

◇4급(40명) ▲IT개발부 임재훈 ▲각화동지점 박숙연 ▲강진지점 이옥남 ▲경양로지점 이수경 ▲광양지점 전창숙 ▲남순천지점 강정선 ▲데이터상품전략부 정수연 ▲동운지점 김현수 ▲마곡지점 박선홍 ▲목포시청지점 김미진 ▲목포지점 김류경 ▲목포지점 정유진 ▲문화전당지점 노세영 ▲백운동지점 정선문 ▲백운동지점 한영제 ▲봉선금융센터 김은원 ▲상무중앙지점 박보연 ▲서구청지점 송영현 ▲서동지점 조유민 ▲성수금융센터 김진경 ▲소촌동지점 나영건 ▲순천법조타운지점 정혜숙 ▲순천신대지점 송유순 ▲신가산지점 김혜영 ▲신안동지점 정다은

▲쌍촌동지점 김다정 ▲양림기동병원지점 박소영 ▲양산동지점 신주원 ▲여의도지점 심우정 ▲인사지원부 최은라 ▲일곡동지점 손우경 ▲자금세탁방지부 정민희 ▲전남대학교지점 신광숙 ▲정보보호부 이은영 ▲조대병원지점 임세은 ▲첨단금융센터 홍은미 ▲프로세스혁신부 안지영 ▲하남지점 문혜림 ▲화순지점 최민희 ▲화정지점 손승경

발령 ▲IT기획부 IT기획팀장 임사기 ▲강남지점 장운정이 ▲강진지점장 배경대 ▲경양로지점장 이정랑 ▲고객센터장 윤정호 ▲고흥지점장 양우중 ▲광주시청지점장 기우태 ▲금남로지점장 이명인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정영식 ▲금호동지점장 남신희 ▲기관영업부장 이동일 ▲남순천지점장 선무영 ▲논현지점장 정준영 ▲담양지점장 최선영 ▲동림지점장 김중진 ▲두암타운지점장 백의성 ▲디지털

금융센터장 송석현 ▲리스크관리부장 김연우 ▲마곡지점장 박선영 ▲만호마재지점장 정스나 ▲매곡동지점장 김은희 ▲문화동지점장 박영현 ▲문흥지점장 한미숙 ▲법원지점장 박병구 ▲빛가람한전지점장 나선진 ▲삼각지점장 나홍렬 ▲서광주지점장 김순희 ▲서울영업부장 정희철 ▲성수금융센터장 이석우 ▲소촌동지점장 문찬국 ▲수신전략부장 서경아 ▲순천법조타운지점장 이상현 ▲순천신대지점장 김미행 ▲신가산지점장 노록곤 ▲신안동지점장 박진영 ▲양림기동병원지점장 김민정 ▲여서동지점장 김성일 ▲여수시청로지점장 차동민 ▲여수운천지점장 최재호 ▲여수지점장 김민수 ▲여신감리부장 김중철 ▲여인관리부 개인신용대출관리팀장 백영기 ▲여신기획부장 손정익 ▲여신심사1부장 박봉수 ▲여신심사2부장 김두선 ▲여신전략부장 우성이 ▲여의도지점장 김두봉 ▲연향동지점

장 이관연 ▲여주지점장 박광수 ▲영암지점장 김미옥 ▲영암부장 김지훈 ▲외환사업부장 김대석 ▲운남동지점장 김상용 ▲운암동지점장 이관형 ▲울촌산단지점장 한현주 ▲인사지원부장 김현성 ▲일곡동지점장 박임구 ▲자금결제실장 문수진 ▲자금세탁방지부장 변정욱 ▲장성지점장 이재민 ▲장흥지점장 서창원 ▲종합기획부 재무관리팀장 겸 미래전략팀장 김치영 ▲주월지점장 김선철 ▲준법감시부장 김경범 ▲중부지점장 김태봉 ▲지역개발금융부장 심정범 ▲진월동지점장 박은화 ▲충무부장 정인성 ▲카드사업부장 김해철 ▲투자금융부장 김진혁 ▲판교금융센터장 조민희 ▲포용금융센터장 윤수현 ▲프로세스혁신부장 박경미 ▲하남공단2금융센터장 김재승 ▲학운동지점장 김희주 ▲화곡동지점장 엄상혁 ▲화정지점장 박남규 ▲혁신사거리지점장 강종식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드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친철한 선주씨(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 좋아	3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	10 TV쇼 진품명품(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15 헬로킴즈 공학교실(재) 30 한글용사 아이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55 헬로킴즈 TV생물도감(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내 비밀친구 형씨(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 30 스튜디오 K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특집다큐 전라남도 신교통지도(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도시락(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소통프로젝트 지역민이 묻고 단체장이 답하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최강자전	50 신데렐라 게임	05 친철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동물은 훌륭하다	40 2024 MBC 연기대상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세차JANG		00 시사타미! 따따부따 30 닥터 365 35 토크콘서트 화통 스페셜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타임W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특선다큐 프로즌 플래시 2(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스포킹 건(재)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2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30 나라는 가수 인 독일 핫클럽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2024 연말 결산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50 KBC특집 2024 월령 여수(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식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예교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07:45 메탈카봇S 경찰의 귀환 08:00 당동당 유치원(재)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다이너스티 공룡수호대 08:50 레인보우 버블랩 09:20 자이언트 팽TV 09:40 PD로그 10:30 신년 특집 - 움직이는 미래	11:20 세계테마기행 〈볼케이노 대탐험-필리핀 마운 화산〉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14:30 특별기획 - 한국의 전통문화를 말하다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55 불블스 16:10 당동당 유치원(재) 16:30 페파 피그 16:40 마사와 곰 16:55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17:10 명탐정 피트4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18:10 EBS 뉴스 18:30 교육대기획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20 고향만국 19:50 왔다 내 손주 20:40 세계테마기행 〈겨울이 오면, 필리핀 -비밀의 섬, 시키코르〉 21:35 한국기행 〈팔도 해상 열전 1부 전주 풍나물극방 VS 부산 돼지국밥〉 21:55 PD로그 22:45 EBS 다큐프라임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0일 (음 11월 30일 戊辰) ☎ 010-9790-8237

36년생 특별함을 도모하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주어질 것이니 놓치지 마라. 48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한다면 문제 없었다. 60년생 공존 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72년생 취약점이 보이니 서둘러 보완해야겠다. 84년생 전체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상정하는 의미는 크다. 96년생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모순이다. 행운의 숫자 : 29, 59	42년생 극한 상황에서 선화하는 성취이니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겠다. 54년생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번역할 길을 찾아라. 66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78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난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90년생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02년생 평행하게 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9, 74
37년생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서야겠다. 49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몹시 당황할 수 있는 날이다. 61년생 복덕성이 멀리서부터 비추고 있으니 상당한 결실을 도출하는 형세로다. 73년생 관리와 확언이 절실하다. 85년생 가 보아야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97년생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80	43년생 격이에 맞아야 제빛을 발휘하라. 55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67년생 경사스러운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에 싸여 있는 정황이다. 79년생 초기 대응에 부실하다면 판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91년생 하나하나 단계를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03년생 명분에서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37, 97
38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50년생 자생력이 근간을 이룰 것이니 현태를 끈기 있게 이끌어 나가자. 62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74년생 난해한 형태 앞에서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86년생 열심하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98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8, 87	44년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56년생 지나치다면 위험한 형국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68년생 주저한다면 실기하는 길로 이어질 것임에 뻔하다. 80년생 문제점이 보이거든 확실하게 척결해야만 후환을 없앤다. 92년생 반복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04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행운의 숫자 : 15, 55
39년생 원래부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51년생 불안정하다고 여긴다면 일단 실행하면서 체계를 잡아도 된다. 63년생 외형적인 기교보다 내부적인 효용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 75년생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기 쉬운 때이다. 87년생 발발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99년생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3, 70	45년생 얌찬 결실을 잉태하는 마당에 임하라. 57년생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9년생 상대 역시 기본적인 인장은 마찬가지로이다. 81년생 이론이나 예단이 아니라 실행에 따르는 것이 낫겠다. 93년생 의례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로 나타내게 되느니라. 05년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89
40년생 설계를 잘해야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는 법이다. 52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 된다. 64년생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비 해야겠다. 76년생 익숙하게 단련되어 있어서 할 만하리라. 88년생 아차 하면 당하니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00년생 해는 없으리라고 보니 일단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31, 75	46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니 꿈도 꾸어서는 아니 되겠다. 58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격량이 요동친다. 70년생 천성과 습관이 갈림들로 작용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82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94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질 수도 있다. 06년생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3, 77
41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53년생 목표점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변수가 있다. 65년생 획득 못했기에 관리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7년생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행복을 기약하리라. 89년생 마음에만 담아두고 발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90	47년생 삶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을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47년생 나서야 할 때 망설이면 심장을 잃게 되는 법이다. 59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71년생 여기저기서 불분명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대목이로다. 83년생 의형까지 손질한다면 훨씬 더 빛나리라. 95년생 실익이 없다면 끼어들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9, 99